동백꽃 핀 선운사서 청춘 남녀 6쌍 피어나다

‘나는 절로’ 선운사 편 성료
3월 28~29일 선운사 일원서
경우 스님 ‘성사 후원금’ 격려

고창 선운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고창 선운사에서 ‘나는 절로’를 진행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의 단체 기념촬영.

천연기념물 동백꽃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고창 선운사에서 6쌍의 커플이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선운사에서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선운사 편은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해 호남권 거주자를 우선 선발했다. 남녀 각 10명 모집에 총 644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이동하는 대신 현장에 개별 집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동 과정에서의 교류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두근두근 랜덤 데이트’는 참가자들이 초반부터 다양한 이성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참 좋은 시절에 선운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도량 곳곳에 동백꽃과 매화가 활짝 피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다. 청정한 도량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은 참가자들의 소중한 인연과 커플 성사를 기원하며 기념품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올해부터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 첫 번째가 선운사”라며 “수많은 신청자 중 선정된 특별한 인연인 만큼 진심과 따뜻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륜 스님은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만남을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인연 맺기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불교에서 중시하는 인연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사찰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이미 여러 커플이 결혼을 확정 지은 성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영남권, 강원권 등 지역별로 찾아가 더 많은 청년에게 희망과 인연의 기회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여성 참가자는 “아침에 처음 왔을 때는 정신이 없어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며 “함께 공양하고 산속 도량을 산책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소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된 뜻깊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선운사 편은 최종 6쌍의 커플이 탄생하며 명불허전 인연 맛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나는 절로’는 고즈넉한 사찰 환경과 현대적 만남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로 건강한 만남 문화 조성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5월 9~10일에는 영남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나는 절로, 동화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월 중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재단 인스타그램 또는 홈페이지 구글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은해사, 성로 스님 체제 출범 “화합으로 발전”

3월 30일, 종무원 상견례서
“화합 · 재정 자립 도약” 약속



은해사는 3월 30일 신임 주지 성로 스님의 취임 인사 및 신임 국장 임명장 수여식, 종무원 상견례를 개최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가 신임 주지 성로 스님 체제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은해사는 3월 30일 주지 성로 스님의 취임 인사 및 국장 임명장 수여, 종무원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성로 스님은 총무국장 선웅 스님을 비롯한 신임 국장단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성로 스님은 취임 소회를 통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듯 가장 좋은 정치는 구성원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은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은해사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자랑스러운 도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지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에 대해 성찰의 뜻을 밝히며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스님은 “선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화합”이라며 “불필요한 우려를 끼친 점을 성찰하고, 교구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재정 자립’과 ‘복지 향상’을 꼽았다. 성로 스님은 은해사 수림장에 모신 영가들을 위해 매달 1회 합동천도재를 봉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은해사 후원회’를 구성해 CMS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종무원과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포교 활성화를 위해 관봉 갓바위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약사불회(가칭)’ 창립 계획도 발표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산행하는 정근 기도회를 통해 불법 홍포와 교구 발전 재원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성로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은해사의 발전과 포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은해사를 만들기 위해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을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해사 사부대중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신임 주지 스님과 함께 불법 홍포와 교구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송광사서 ‘사찰음식+국악’ 한마당

3월 29일 경내서 문화행사
1000명에 사찰음식 공양해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29일 경내에서 ‘2026 송광사 사찰음식 문화한마당’을 개최하고 지역민과 사찰음식과 문화예술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연을 담은 밥상, 소리를 빚는 도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송광사가 보유한 사찰음식 문화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송광면·주암면·외서면 등 인근 지역 주민과 내방객 1000여 명이 참여해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핵심인 사찰음식 공양은 사찰음식 전문가 능가 스님이 준비한 건강한 메뉴로 마련됐다. 능가 스님은 송광사 후원에서 지역민들에게 사찰음식을 공양했으며,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직접 배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문화행사에는 승남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전남도립국악단의 전통 국악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승남중학교 전교생이 현악기를 배우며 구성한 앙상블은 지역 문화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떡메치기 체험과 감로다례 전통차 시음, 한과 시식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무자 스님은 환영사에서 “소박한 음식이지만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좋은 기억을 담아가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대학에 신입생 1500명 입학

3월 26일 전국 9개 도량서
회주 우학 스님, ‘끈기’ 강조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대륜 스님)가 3월 26일 옥불보전에서 2026년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회주 우학 스님과 주지 대륜 스님, 이영애 총동문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 9개 도량에서 1500여 명의 신입생이 동시 입학해 눈길을 끌었다.

우학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삶이 수월해지고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 교리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 큰 이득이 생기게 된다”며 “꾸준히 또 끈기 있게 공부해서 큰 성취가 있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주지 대륜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가 없도록 늘 살피겠다”며 “대관음사라는 좋은 인연 만났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공간을 잘 가꿔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애 총동문신도회장은 축사에서 신입생들을 ‘복 받은 인연’이라 칭하고 “스님의 쉽고 자세한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정진해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해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2년간 전법사 과정을 통해 불교 기본 교리와 사찰 예절, 명상 등을 배우게 된다. 이후 교법사·삼장법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행과 포교 역량을 갖춘 불자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강진 백련사 사찰음식 경연대회 성료

3월 27일 발효음식 주제
대학생 8팀 라이브 경연



한식의 본고장 남도에서 사찰음식의 깊은 맛과 가치를 조명하는 경연대회가 열렸다.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3월 28일 경내에서 ‘제6회 백련사 차(茶)와 사찰음식 전시·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제3회 동백꽃 축제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는 ‘비움의 수행, 채움의 정성, 자비 나눔의 꽃’을 주제로, 동백과 사찰음식을 결합한 남도형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동백꽃이 절정을 이룬 시기에 맞춰 차 문화와 사찰음식 경연, 발효음식 특별전시, 동백꽃 체험부스가 함께 진행되며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했다. 발효음식 전시에서는 김치와 장, 식초 등 우리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이 소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지 설도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지혜와 의미가 하나의 선(善)이 되어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서로 나누는 인연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수행과 나눔이 함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대학생들이 참여한 라이브 사찰음식 경연이었다. 요리를 전공하는 대학생 8개 팀이 참가해 현장에서 직접 조리를 진행하며 사찰음식의 창의적 해석과 현대적 가능성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절제와 수행의 의미를 담은 사찰음식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현장에 활력을 더했다.

이날 경연에서는 대학생 8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상(국가유산청장상)은 ‘걸리버 사찰기’ 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채식주의보’, 우수상은 ‘금강’, ‘저는 봄이 쪼아요’, ‘연화’ 팀이 각각 차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담당 진성 대종사 18주기 다례재

수덕사, 3월 29일 봉행



조계종 제7교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3월 29일 원담당 진성 대종사의 열반 18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덕숭산의 가풍을 ‘문 없는 가풍’이라 하셨다. 들어갈 틈도 나올 틈도 없지만 항상 열려 있어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문이라는 뜻”이라며 “그 문은 업장이 없어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또한 들어갈 틈 없는 그 문, 나올 틈 없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덕사는 〈수덕유사〉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수덕유사〉는 설정 스님의 회고와 구술을 바탕으로 경허·만공 선사를 비롯한 선지식들의 행적과 덕숭산과 인연을 맺은 스님들, 수덕사의 현대사, 만공 스님의 항일 정신 자료 등을 담은 책이다.

원담당 진성 대선사는 경허·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은 선지식으로 1933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이후 수덕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원로회의 부의장, 덕숭총림 제3대 방장을 역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관응당 지안 대종사 22주기 다례재

3월 27일 직지사 중암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강백이자 유식학의 대가로 추앙받는 관응당 지안 대종사의 원적 22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재가 3월 27일 김천 직지사 산내 암자인 중암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는 지안 스님이 생전 주석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중암 영산보전에서 관응문도회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향, 헌다, 헌화의 예를 올리며 스님의 엄격한 학풍과 수행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불교 교학 전통 확립에 기여한 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문도 대표 도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스님들이 노스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선배 스님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향이 끊이지 않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양주 대승종 원각사 개원 법회

3월 29일 부처님 점안도



대한불교대승종 원각사(주지 보성 스님)는 3월 29일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대승종 종정 법경 스님과 총무원장 일봉 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를 비롯해 안학기 신도대표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원각사의 앞날을 축원했다.

주지 보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봄 내음 가득한 감악산 자락에 원각사 터전을 잡고 부처님을 모시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부처님 말씀을 전법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누는 도량, 신도들의 편안한 안식처와 기도 도량이 되도록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